

[P1 - 22]

## 보건소 내원 일부 농촌지역 노인의 골밀도 및 체위, 생활습관, 혈액 칼슘, 인, 지질 농도 상태조사

김정인<sup>1</sup>, 임화재<sup>2</sup>, 서태진<sup>1</sup>, 유성자<sup>1</sup>, 변부형<sup>3</sup>

<sup>1</sup>인제대학교 바이오헬스 소재 연구센터, 식품과학연구소, 식품생명과학부, 기초과학연구소

<sup>2</sup>동의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, <sup>3</sup>대구한의대학교 한의학과 병리학교실

### Investigation of BMD, anthropometric status, life style and plasm Ca, P and lipid profile of rural elderly

Jung-In Kim<sup>1</sup>, Hwa-Jae Lim<sup>2</sup>, Tae-Jin Seo<sup>1</sup>, Sung-Ja Yoo<sup>1</sup>, Boo-Hyeong Byun<sup>3</sup>

<sup>1</sup>Biohealth Product Research Center, School of Food and Life Science, Institute for Food Sciences,  
Institute of Basic Sciences, Inje University, Gimhae, Korea

<sup>2</sup>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, Dongui University, Busan

<sup>3</sup>Department of Oriental Medicine, Daegu Haany University, Daegu

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년층의 건강관리 문제가 중요시되고 있다. 본 연구에서는 창녕보건소를 내소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남자노인(36명), 여자노인(70명)을 대상으로 골밀도 상태 및 체위, 생활습관, 혈액내 칼슘, 인, 지질 농도 상태를 조사하여 농촌지역 노인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영양교육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.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남자 71.1세, 여자 69.7세였다. 골밀도 측정결과 평균 T-값이 남자노인-1.58, 여자노인 -2.48로 여자노인의 T-값이 남자노인의 T-값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. 골밀도 상태를 살펴보면 남자노인의 경우 정상 30.6%, 골감소증 41.7%, 골다공증 27.8%였으며, 여자노인의 경우 정상 8.6%, 골감소증 40%, 골다공증 51.4%로 나타났다. 남, 녀 노인의 골감소증 및 골다공증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노인 72.3%로, 여자노인 91.4%로 여자노인의 경우 남자노인에 비해 골감소증 및 골다공증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체중은 남, 녀 노인 각각 65.8kg, 55.5kg이었으며, BMI는 남자노인 23.9kg/m<sup>2</sup>, 여자노인 24.6kg/m<sup>2</sup>로 나타났다.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은 남자노인 141.7mmHg, 81.3mmHg로 나타났으며, 여자노인은 141.8mmHg, 80.2mmHg로 나타났다. 남자와 여자노인 사이에 혈당, 혈장 중성지방, 유리지방산, HDL-콜레스테롤, 칼슘 농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, 여자 노인의 경우 남자 노인에 비해 BMI, 체지방%, 허리둘레, 혈장 콜레스테롤 및 인의 농도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, 운동시간 및 옥외활동 시간은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. 남자 및 여자노인 모두 골밀도와 혈액성분 및 흡연량, 커피섭취량, 녹차섭취량, 옥외 활동시간 등의 생활습관 인자간에 유의적인 상관관계는 없었으나, 여자노인의 골밀도는 체중, BMI 및 운동시간과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. 이상의 결과에서 농촌 남, 녀 노인의 경우 각각 70%, 90% 이상이 골감소증 및 골다공증인 것으로 나타나, 농촌노인의 골밀도 상태는 매우 우려되는 수준임을 알 수 있으므로 농촌 노인들의 골밀도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.